

서울시, 위기상인 발굴하고 선제지원… 골목상권 살린다

공동체 육성 등 조례제정 추진

소상공인 체계적 지원 기반 마련
“개별 영세상인 상권활동 참여
선순환 구조로 지속성장 도모”
전통시장 ‘롱런 프로그램’ 가동

서울시가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 전통시장 롱런(Long-Learn) 프로그램 운영 등에 나선다.

14일 서울시에 따르면,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은 흩어진 상권 내 소상공인을 구획화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법·제도 기반을 갖추기 위해 추진된다. 상권의 자생력 강화와 정책 효과의 지속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상권 중심점 역할을 하는 상인 공동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보고, 이 조례를 제정해



서울시내 전통시장 모습(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메트로DB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상권 면적·밀집도·점포 수를 감안해 연차별 수요를 예측하고 공동체 대상 단계별 지원 프로세스를 구축할 것이라고 시는 밝혔다.

아울러 시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차별화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골목상권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시는

골목상권 지원 조례 등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상권 모니터링 고도화, 정책 효과 분석, 위기 상권 발굴, 선제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시는 “3(고(물가·고금리·고환율)와 내수 부진에 따른 골목상권 침체로 인해 영세상인 매출 부실·연체 및 폐업 증가의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며 “골목

상권 영세상인은 전통시장과 달리 지원 근거가 미비해 정부나 지자체의 각종 상권 활성화 정책에서 소외돼 생존 위기에 처했다”고 진단했다.

시는 골목상권 구획화로 정책 편입 및 지원 체계를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구획화를 통해 골목상권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지원, 온누리상품권을 적용하고 정부·지자체의 다양한 행·재정적 서포트로 영세상인의 매출이 증대할 것으로 시는 기대했다.

지원 대상은 영세상인 25~30명 이상, 상인 단체가 없는 골목상권으로 전통시장은 제외된다.

시는 “개별 영세상인이 상권 단체 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해 스스로를 돕는 자조적인 골목상권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한다”며 “골목형상점가 등록 지원을 통해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에 기여하고 개별 점포 매출 상승을 견인해 지역 경제 활력을 높이고 영세상

인의 생존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통시장을 위한 롱런 프로그램도 가동된다. 이는 서울시 전통시장을 유형별로 분류해 각 특성에 맞게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근린 생활형 시장의 경우 지역 주민 밀착형 상인 역량 강화를 돕고, 관광형 시장은 고유의 강점을 드러내는 브랜딩·마케팅을 지원한다. 시는 사업 기간을 2년 이상으로 구성해 상인과 고객의 인식이 변화하는 과정을 함께 경험하고, 성과 관리를 통해 우수 시장 인증 제도를 운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기존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학습과 성장 기반으로 자생력을 높이는 서울형 전통시장 활성화 모델을 구현할 것”이라며 “전통시장 유형별 고유의 강점을 살려 지역 소비자와 관광객이 찾고 싶은 활력 있는 상권을 육성하겠다”고 전했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학년 올라갈수록 ‘문해력’ 격차 확대

서울시교육청, 문해력·수리력 검사
초4, 문해력 미달 3%→고1, 7% 확대
수리력 미달은 4%→13% 크게 늘어

학생들의 문해력 격차가 학년을 거듭할수록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해력 ‘기초 미달’ 수준 진단을 받은 학생과 ‘우수 수준’을 받은 학생 비율이 모두 학년이 오를수록 커지고, ‘기초 수준’과 ‘보통 수준’ 학생 비율은 낮아지면서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졌다.

서울시교육청은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 서울 학생 문해력·수리력 진단검사’ 시행 결과를 발표했다. 진단검사는 학생 문해력과 수리력을 진단하는 검사 도구로 지난해 11월 4일부터 7일까지 서울시 초·중·고교 524곳 9만 4000여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해당 학년 전체 학생 수 대비 약 35% 규모다.

검사 결과 문해력 평균 척도점수는 초4(1452.77점)에서 고1(1736.18점), 수리력은 같은 학년 기준 1433.33점에서 1629.89점으로 올라 학년이 올라갈수록 문해력과 수리력은 꾸준히 향상

됐다.

그러나 학생들의 문해력 격차는 학년이 오를수록 심화했다. ‘기초 문해력 미도달’을 뜻하는 1수준 비율은 초4(3.42%)에서 초6(4.26%), 중2(5.92%), 고1(7.02%)로 2배 이상 커졌고, ‘우수한 수준’의 문해력을 뜻하는 4수준 비율도 초4(30.16%)에서 초6(43.84%), 중2(47.10%), 고1(52.13%)로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반면, 2수준 비율은 초4(17.83)에서 초6(12.70), 중2(15.01), 고1(12.98)으로, 3수준은 초4(48.58), 초6(39.20), 중2(31.97), 고1(27.86)로 비율이 모두 낮아졌다. 고학년으로 갈수록 학생들의 문해력이 좋아지긴 하지만, 같은 학년 안에서 학생 간 차이가 점점 벌어진 셈이다.

수리력의 경우, 4수준 학생 비율이 초4(43.8%)에서, 초6(45.92%), 중2(43.3%), 고1(34.19%)로 집계돼,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넘어가면서 ‘우수한 수준’의 수리력을 가진 학생 비율이 떨어졌다.

기초 수리력 미도달 의미의 1수준은

초4(4.12%)에서 초6(5.59%)에서 중2(12.42%), 고1(13.68%)로 점차 증가해 중학교 진학 이후 이른바 ‘수포자’가 크게 늘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진단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학생의 문해력·수리력 신장을 위한 장학 자료를 개발하고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컴퓨터 기반 검사(CBT)로 전환해 700교, 약 12만명(대상 학생의 약 50%)의 학생들이 진단검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문해력·수리력 진단검사 결과가 서울 학생들의 역량 교육 강화에 중요한 이정표로 작용할 것”이라며 “향후 컴퓨터 기반 검사(CBT)를 구축해 학생 이력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확한 진단과 원인 분석을 통해 학생 역량 진단검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며 “초4부터 고1까지의 문해력·수리력 신장을 위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여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lhj@

서울시, 집 앞 5분거리 녹지 500곳 조성

작년 매력·동행가든 536곳 만들어
내년까지 정원 총 1007곳 계획 발표

서울시는 올해 매력·동행가든을 500곳 이상 조성한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시는 작년 3월 시민 누구나 집 앞 5분 거리에서 녹지를 즐길 수 있도록 오는 2026년까지 정원 1007개소를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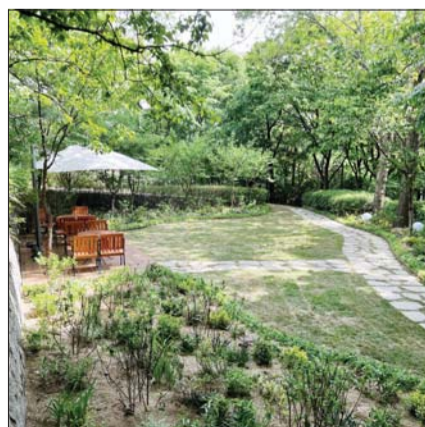
시가 지난해 설치한 매력·동행가든은 총 536개소(42만㎡)이다. ‘2024 서울국제정원박람회’ 개최지였던 독섬

한강공원이 있는 광진구에 가장 많은 정원(110개소)이 조성됐다. 이어 성동구(40개소), 마포구(28개소) 순이었다.

면적별로는 노원구(4만8236㎡), 관악구(3만9467㎡), 강서구(3만8917㎡), 광진구(3만1784㎡) 순이었다.

시는 매력·동행가든 조성을 통해 서울시내에 교육 1만335주, 관목 65만 8714주, 초화류 271만4863본이 식재됐다고 덧붙였다.

매력·동행가든의 위치와 규모, 정원



개운산 동행정원 전경. /서울시

에 담긴 이야기 등 상세 정보는 ‘정원 도시 서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현정 기자

파주시 “민생회복 생활안정지원금 드려요”

21일 신청… 파주페이로 10만원 지급

파주시는 민생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4년 12월 26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이 된 내국인들에게 ‘파주시 민생회복 생활안정지원금’ 신청을 오는 21일부터 받는다. 지원금은 1인당 10만원이 지역화폐인 파주페이로 지급되며, 신청 당일부터 익일 오후에 즉시 사용이 가능하다.

지원금 신청은 온·오프라인에서 모두 진행되며, 신청 기간은 1월 21일부터 2월 20일까지이다. 신청 첫 주인 1월 21일부터 24일까지는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생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별 4부제가 적용된다.

파주페이카드가 있는 시민은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파주페이카드가 없는 시민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현장 신청 후 카드

를 발급받을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주말과 공휴일을 포함해 매일 09시~22시까지 가능하고, 오프라인 신청은 평일 09시~18시까지 받는다.

성인의 경우 대리신청이 불가능하며, 미성년자는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가 합산하여 신청할 수 있다. 오프라인에서는 성인의 경우 동거인 제외한 세대주 또는 세대원 누구나 대리신청이 가능하다. 미성년자의 경우 동일 세대 내에서는 대리신청이 가능하며, 동일세대가 아닐 경우 가족관계가 확인되면 대리신청이 가능하다.

/파주(경기)=안성기 기자 ask9990@

취약계층 창호·조명 고효율제품 교체 지원

서울시 ‘새빛주택 지원 사업’

서울시는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노후 주택의 창호·조명 등을 고효율 제품으로 교체해주는 ‘새빛주택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사용 승인 후 15년 이상,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인 주택이면 신청 가능하다. 주택 소유자 또는 소유자의 위임을 받은 세입자가 지원 사업 참여 신청을 하면 된다. 건축법상 주택인 경우에만 지원하며, 공공주택·준주택·무허가 주택 등은 제외된다.

단열 창호와 고효율 LED 조명의 보조금 지원 한도는 교체 공사비 70% 이내(부가가치세 제외)이며, 최대 지원 금액은 단독·다가구 주택의 경우 500만원, 공동주택(아파트·빌라·다세대 주택

등)은 300만원이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주택은 공사비의 최대 90%까지 지원한다. 주택 냉·난방 공간 외벽의 저효율 창호를 ‘단열 창호’로 모두 교체하거나 주택 내부 형광등과 백열등을 ‘고효율 LED 조명’으로 바꾸는 경우에 보조금이 지원된다.

지원 대상자를 정하는 보조금 심의 위원회는 올 3월부터 10월까지 한 달에 한 번씩, 총 8차례 개최된다. 지원 희망자는 보조금 심의 전달 말일(근무일 기준) 오후 6시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희망자는 서울시 건물에너지효율화 지원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거나 저탄소건물지원센터(서울시청 서소문1청사)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김현정 기자